

‘광주·칭화포럼’ 중국 교류 교두보 역할 ‘톡톡’

자동차 이어 문화콘텐츠 주제
DJ센터서 두 번째 포럼
석학·기업가 등 120명 참석
칭화대와 다양한 협력 약속

광주·칭화포럼이 광주와 중국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또 포럼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문화산업·디지털 전문가, 기업가들이 모여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양 도시의 미래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센터 컨벤션홀3에서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 기업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광주·칭화포럼’을 개최했다. 광주·칭화포럼은 지난 2015년 10월 운장현 광주시장이 중국 베이징 칭화대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강연을 벌인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이후 광주시는 칭화대와 의의를 통해 지난해 처음으로 ‘광주·칭화 자동차포럼’을 개최하며 교류 플랫폼 형성에 시동을 걸었다. 올해 2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에서는 먼저 중국 디지털 문화콘텐츠산업을 이끌고 있는 칭화대 국가문화산업연구센터 송청위 센터장과 호남대 교수이자 방송통신위

원회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명중 교수가 각각 ‘글로벌 디지털 창의 생태계 구축: 콘텐츠, 기술 및 전파’, ‘4차 산업혁명과 콘텐츠의 미래’ 등의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또 당사 대외한어문화교육센터장, 동스웨이 교수, 류재현 전남대 교수, 한동승 한국문화콘텐츠 기술학회장, 신정호 목포대 교수, 양지혜 (주)캐릭터플랜 대표, 이미연 (주)KT 상무 등이 발제에 나섰다. 이 밖에도 (유)상하이형문문화미디어 등 중국기업과 광주기업인 (주)매그노스튜디오 등이 참여하는 기업 간담회에서는 한·중 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기도 했다.

시는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한 칭화대 국가문화산업연구센터와 앞으로 다양한 교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칭화대 국가문화산업연구센터는 산·학·연·관이 결합된 과학연구모델로 국가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제 학술계 위상도 높다. 광주·칭화포럼은 사드 정국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개최되는 등 중국과의 교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광주·칭화포럼의 주제를 다양하게 마련해 폭넓은 교류와 네트워크 형성 발판을 마련하는 등 친중국 정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지진대비 지하철 점검 광주도시철도공사 김성호 사장 등 임직원 10여명이 지난 24일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열차운행이 끝난 심야부터 25일 영업개시까지 본선 터널 내 비상방수문 종합시운전 등 대대적인 시설물 점검을 실시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제공>

광주시민 300명 이웃사랑 김장나누기

광주시자원봉사센터는 신한금융지주 호남본부(본부장 정만근)와 함께 지난 25일 오전 광주김치타운에서 ‘오감자극 사랑에 김장김치나누기’ 행사를 열고 소외된 이웃에 전달할 김치를 담갔다. 이날 행사에는 신한금융지주호남본부 임직원 170여 명과 광주시자원봉사센터의 빛고을청년봉사단 100여 명,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김치 3500kg을 담가 사회복지 시설과 기관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해 겨울나기를 지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 2006년부터 11년째 해마다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 후원하고 참여하는 신한금융지주호남본부 임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소외된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김장나누기를 통해 호남권 공동체의 정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환경공단, 유덕동 노후주택 개선 봉사

광주환경공단(이사장 안용훈)은 최근 제1하수처리장 인근 주민들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봉사 활동을 했다. 지난 24일~25일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은 유덕동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 두 가구를 선정했고, 환경공단 직원 50여명이 참여했다. 주거환경 개선 봉사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방한대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주로 노후화된 전기 콘센트와 전등을 교체하고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노출된 전선을 정리했다. 또 외풍이 심한 나무창틀과 미닫이문에 방풍막과 방풍테이핑 작업을 하여 방한대책을 마련했다. 이 밖에 낡은 외벽을 새로 칠하고 마당에 방치돼 있는 폐기물을 치우는 등 유덕동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줬다. 환경공단은 이번 재능기부 봉사를 계기로 지역 주민센터와 협업하여 기술 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한 환경기초시설 인근지역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환경공단 안용훈 이사장은 “이번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이웃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수돗물 ‘안전’ 미세 플라스틱 미검출

최근 환경부가 전국 수돗물을 대상으로 미세 플라스틱 실태조사 실시한 결과 광주시 수돗물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지 않았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환경부 조사는 지난 9월 미국 비영리 단체인 ‘오브 미디어’가 미국 등 14개국 159개 수돗물 시료 중 84%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1ℓ 당 평균 4.3개가 검출됐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국내 수돗물 점검 차원에서 추진했다.

환경부는 전국 24개 정수장을 선정해 미세 플라스틱 검사를 실시했으며, 3개 정수장에서 미량 검출됐다.

광주에서는 주암댐 원수와 덕남정수장 등 2개소가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앞서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0월에는 용연, 덕남, 각화정수장과 이들 정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가정집 수도꼭지 3개소, 빗어울수 제조공장 등 총 7개소의 수돗물에 대한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했으며, 모두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시는 환경부가 미세 플라스틱 검출 관련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수돗물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또 오는 2019년까지 용연정수장에 오존과 임상활성탄 과정을 거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 수돗물 안전성을 높일 방침이다. /윤현석기자chadol@



지난 23일 ‘제3회 대학생 지속가능발전 경연대회’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공>

채식 체험·맞춤형 셰어하우스 금상

‘대학생 지속가능발전 경연대회’ 수상작 선정

전남대 인류학과 김미리 학생과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김창우 학생의 에세이 ‘광주에 채식주의자가 살아요’와 논문 ‘대학생 맞춤형 셰어하우스 개발을 위한 인식연구:광주지역 대학생들 중심으로’가 제3회 대학생 지속가능발전 경연대회에서 금상을 각각 수상했다.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는 지난 23일 제3회 대학생 지속가능발전 경연대회 결선을 진행해 에

세이 부문 금상에 김미리 학생 등 4팀, 논문 부문은 김창우 학생 등 8팀을 선정했다. 올해로 3회째인 경연대회는 청년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지속가능발전과 광주 5차 의제의 17개 의제를 주제로 논문 부문과 에세이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지난 10월 11일부터 11월 12일까지 한 달 동안 연관된 주제를 학생들이 직접 선택하고 주제에 맞춰 에세이와 논문을 작성해 제출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에세이 ‘광주에 채식주의자가 살아요’는 김미리 학생이 직접 채식을 체험하며 작성했으며, ‘대학생 맞춤형 셰어하우스 개발을 위한 인식연구:광주지역 대학생들 중심으로’는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셰어하우스 인식, 필요성, 거주 의사, 거주 이유 등을 설문해 정리했다. 경연대회를 주관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병연 상임회장(광주대 교수)은 “이번 경연대회가 대학생들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출된 논문과 에세이는 지도교수와 보안을 거친 후 보고서로 출간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順天朴氏 參議公派 宗中 時祭日

順天朴氏 參議公 宗中員들께서는 바쁜 渦中이더라도 한분도 빠짐없이 參席하여 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日時 陰曆 十月 十五日(陽曆 十二月 二日)

場所 參議公 祭室(定期總會)

案件 •新北面 龍山里 山 二十一番地 (太陽光 事業件)
•墓地管理精華事業件

會長 朴 相 繪 010-9601-5000